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 초보자와 숙련자의 비교

이 선 자[†] 최 해 림

서강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 경력에 따라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히면서 저항을 다루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개입 자세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보자와 숙련자의 상담 사례 4개를 11회까지 분석하여 양자간의 저항의 차이, 상담자 개입 특성의 차이,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간의 상관 정도의 차이, 그리고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저항에서, 초보자는 상담자 관련 저항이, 숙련자는 내담자 관련 저항이 높았으며, 숙련자는 회기 진행에 따라 초기 저항이 점차 고조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는 내담자 저항 내용은 상담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과 저항에 패턴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담자 개입특성에서, 초보자는 지시성과 위협도가, 숙련자는 개입의 깊이가 높았으며 대인적 분위기는 차이가 없었고, 회기 진행에 따라 초보자는 각 상담자 개입 특성의 증감이 불규칙한 반면 숙련자는 지시성과 깊이가 정점이 있는 증감을, 분위기는 변화 없는 중간 수준 유지로, 위협도는 매우 낮음을 보였다. 이는 적절한 지시성 사용, 개입의 깊이를 더하기, 긍정적인 대인적 분위기 유지와 비위협적인 자세가 상담자에게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 간의 상관 정도의 차이에서, 초보자는 지시성과 위협도가 숙련자는 위협도가 저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상담자의 지시성이 높을수록 더 위협적일수록 저항이 증가함을 말해준다. 한편 숙련자의 높은 내담자 관련 저항은 상담자 개입과는 상관이 없어 상담자 개입과 무관한 내담자 저항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단기와 장기 상담의 차이에서, 숙련자는 저항은 장기가 높았고, 지시성과 대인적 분위기가 장기에서 높았다. 이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성과 양상에 맞추어 상담 개입 내용과 정도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저항, 상담자 개입 특성, 초보자, 숙련자, 회기 진행

이선자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 관구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선 자, (500-2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 63번지 사랑의 씨튼 수녀회,
전화 : 062-571-3004 E-mail : sunualee@hanmail.net

상담 목표와 노력에 반대하는 내담자의 행동인 저항(Dewald, 1974; Stone, 1973; Streaan, 1985)은 크게 내담자 요인과 상담자 요인으로 구분한다. 저항의 내담자 요인이란 내담자의 억압된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직면의 회피 및 불안(Freud, 1946; Fenichel, 1945; Glover, 1955; Greenson, 1967; Stone, 1973), 개방과 수치심, 불편에 대한 공포, 자기 응징적 자세, 변화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Ellis, 1985)등이다. 저항의 상담자 요인은 내담자 중심에서 벗어난 상담자의 무리한 통찰 요구, 비판적 혹은 지시적인 자세, 비지시적이고 설명적인 자세(Roges, 1942), 내담자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잘못된 지각 및 해석, 상담자의 일방적인 상담 진행(Ellis, 1962; Ellis & Harper, 1975; Lazarus & Fay, 1982)등이다.

저항의 원인이 무엇이든 저항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는 상담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저항 분석의 필요성과 상담자의 시기 적절한 분석 자세,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깊은 이해, 통찰, 진실성, 작업 동맹, 공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Freud, 1900; Ferenczi, 1955; Anna Freud, 1956; Greenson, 1967; Brenner, 1976; Fine, 1982; Streaan, 1985)를, 인간중심에서는 상담자의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Rogers, 1957)를, 그리고 합리적 정서치료에서는 내담자를 도우려는 상담자의 깊은 관심과 노력, 무조건적 수용, 상담자 자신의 치료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담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폭 넓은 지식, 융통성과 비독단성,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능력, 인내심과 전문성, 내담자에게 변화될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을 심어주는 태도(Meichenbaum, 1977; Ellis, A. 1985)등을 강조한다.

저항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저항 척도의 개발(Chamberlain, Patterson, Reid, Kavanagh & Forgatch, 1984; Shuller, Crits-Christoph & Connolly, 1991;

Mahalik 1995; 권희경, 1999; 조성호, 1997)과, 저항과 상담자 반응, 저항에 대한 해석(Speisman, 1957; Garduk & Haggard, 1972; Patterson & Forgatch, 1985; Schuller, 1991; Mahalik, 1994; Winston, Samstag & Muran, 1994; 권희경, 1999; 조성호, 1997), 내담자 성격 특질(Scheller, 1991; 조성호, 1997)에 관한 것이었다.

내담자 저항에 대한 상담자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직면 증가는 저항의 감소를(Winston, Samstag & Muran, 1994; 권희경, 1999), 상담의 지속 성공을 유지했으며 권희경, 1999) 상담자의 지시성이 높을수록, 깊이가 깊을수록, 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저항은 커졌고 작업동맹도 저항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조성호, 1997). 또한 권희경(1999)은 내담자 저항이 있는 다음, 성공 사례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증가 되고 실패 사례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저항과 상담자 해석과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상담자의 해석적 개입은 비해석적 개입에 비해 더 많은 저항을 유발하거나(Garduk & Haggard, 1972),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고(Schuller, 1991), Rogers, Ellis, Pears와 같은 각 이론의 대표자들의 해석은 저항의 감소(Mahalik, 1994)를 가져왔으며, 심층적 해석은 가장 큰 저항을, 중간 수준 해석은 가장 적은 저항을, 피상적 해석은 중간 정도의 저항을 유발하였다(Speisman, 1957).

저항과 내담자 성격특질과의 연구 결과, Schuller (1991)는 저항과 내담자의 성격 특질간의 연관성을, Mahalik(1994)는 내담자들간의 차이가 저항의 변인임을 주장한 반면, 조성호(1997)는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저항에 대한 상담자 반응, 해석 및 내담자 성격 특질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상담개입을 할 수 있는 상담자의 숙련 정도가 저항과 관련된 또 다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Rogers, Pears, Ellis에 대한 Mahalik (1994)의 연구 결과는 저항과 상담자 숙련성과의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촉구한다.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담의 경험이 많은 상담자는 보다 많은 사실적 정보로 정보 수집 처리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Hillerbrand, 1989; Hillerbrand & Claiborn, 1990), 많은 지식적 기반과 효과적인 인지 능력으로 사례 개념화에 뛰어나고(Mellinckrodt & Nelson, 1991), 다양한 문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추론 방식과 지식을 사용하며(Anderson, 1981), 기법보다는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며, 해석에 더 중점을 두고(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 더 우호적이며(Strupp, 1958), 내담자 태도에 영향을 덜 받고 일관되게 행동한(Berry, 1970) 반면, 경험이 작은 상담자는 말이 많고, 감정 표현을 빈번하게 하며, 직접적 지시, 충고, 침묵 등의 언어 반응 유형을 더 사용하였다(Scher, 1975; Sipps, Sugden & Faiver, 1988).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의 양상과 회기 진행 변화의 차이를 상담자의 상담 경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의 양상 및 장기와 단기상담의 차이를 밝히면서 저항을 다루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상담 개입 자세를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를 위하여, 초보자와 숙련자 사례에서의 저항, 상담자 개입특성,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과의 상관정도의 차이 그리고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에서 숙련자의 사례 비교를 포함한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내담자

본 연구에 관련된 내담자는 상담 초보자에게서

표 1. 내담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내담자	상담자	상담기간	문 제 영 역	심 각 도
내담자 1	초보자 1	단기	대인, 가족, 정서문제, 시험 스트레스 진로 적성, 학업 지능 성격 습관, 가치관, 종교	조금 심하다 웬만큼 있다 약간 있다
내담자 2	초보자 2	장기	가족, 이성, 성 문제 진로 적성, 정서 문제 대인관계	아주 심하다 웬만큼 있다 약간 있다
내담자 3	숙련자	단기	대인, 가족, 이성 관계 진로 적성, 성격 습관, 정서적 문제	약간 있다 약간 있다
내담자 4	숙련자	장기	대인, 가족, 정서 문제 학업 지능, 성격 습관, 진로 적성 흡연	아주 심하다 꽤 심하다

상담을 받은 2명의 대학생과 한국 내 저명한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2명의 대학생으로 평균 나이는 24세이고 이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문제의 정도가 단기 상담보다는 장기상담이 더욱 심했다(표 1 참조).

상담자와 상담사례

초보자는 평균 1년의 상담경력을 가진 2명으로 정신역동에 중점을 둔 절충주의와 정신역동을 각각 사용했다. 숙련자는 상담 경력 40년 이상으로 정신역동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관련된 상담자들의 주요 접근법은 정신역동이다. 상담사례는 총 4개로 상담목표 달성 후 종결된 초보자(1회)와 숙련자(15회)로부터의 단기상담 2개와, 24회 진행된 초보자 사례, 그리고 아버지의 성급한 개입으로 22회 종결됐으나 계속 상담이 요구된 숙련자의 사례인 장기상담 2개이다.

측정도구

내담자 저항 평정 척도

조성호(1997)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개발한 저항 척도이다. 이 중 내담자 자신에 관한 자료나 상담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 1)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회피, 문항 2) 모호한 의사소통, 문항 3) 주지화된 의사소통, 문항 4) 탐색과 이해의 결여, 문항 7)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내담자 관련 저항으로, 상담자에 대한 태도나 상담자의 상담 방식에 대한 내담자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 5)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 문항 6) 상담자 개입에 대한 비순종, 문항 8) 상담 방식에 대한 이견과 불만을 상담자 관련 저항으로 분류했다. 각각의 차원은 0에서 4에 이르는 Likert 방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담자 개입 특성 평정 척도

상담자의 개입 특성을 상담자 개입의 지시성, 깊이, 대인적 분위기 및 위협도 영역에서 평가하도록 조성호(1997)가 제작한 것으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덜 위협적이라고 평정되는 위협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지시성, 깊이, 대인적 분위기가 더욱 크다. 지시성은 상담자 개입이 내담자의 행동의 자유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정도를, 깊이는 상담자 개입이 내담자가 현재 자각하고 있는 자료를 넘어선 자료를 다루는 정도를, 대인적 분위기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언급이 지니는 정서적 함의를, 그리고 위협도는 내담자의 불안과 방어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에 위해가 되는 상담자 개입을 말한다.

평정자와 평정절차

평정자는 상담 경력 2년 이상인 4명의 상담자로 두 명은 저항을 두 명은 상담자 개입특성을 평정하였다. 그들은 먼저 평정 내용을 숙지한 후 본 연구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숙련자와 초보자의 사례를 포함한 다섯 개의 상담사례를 가지고 예비평정을 실시하면서 결과를 비교하여 평정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갖도록 연습한 후 축어록과 상담 토막 테이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될 사례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평정 결과와 평정자간 일치율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 평정자들에 대한 평정 일치도를 조사하였는데, 평정자간의 급내 상관계수의 범위가 저항은 .63에서 .80이었고, 상담자 개입은 .62에서 .81로 둘 다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평정자들 간에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연구 결과 및 해석

초보자와 숙련자의 저항의 차이

저항 유형에 따른 차이

초보자와 숙련자 앞에서 내담자가 나타내는 저항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표 2에 의하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상담자 요인과 내담자 요인의 저항이 나타나지만 둘 다 상담자 관련 저항보다는 내담자 관련 저항의 빈도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숙련자는 내담자 관련 저항이, 초보자는 상담자 관련저항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의 저항은 상담자 및 내담자 자신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으나 상담자가 원인인 저항보다는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저항을 더 자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숙련자는 내담자 관련 저항이, 초보자는 상담자 관련 저항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상담회기 진행에 따른 차이

회기 진행에 따른 저항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3에 의하면, 전체 저항의 양은 숙련자가

표 3. 회기별 저항의 비교

	초보자	숙련자	t
전체	.84(.55)	1.09(.56)	2.49*
1회	.92(.60)abc	.97(.41)ab	-.20
2회	1.20(.57)c	1.29(.61)b	-.41
3회	.56(.33)a	1.06(.50)ab	-3.34**
4회	.75(.73)ab	1.15(.61)b	-2.19*
5회	/	.80(.64)ab	/
6회	1.08(.56)bc	1.34(.76)b	-1.08
7회	.76(.64)ab	.72(.52)a	.19
8회	.86(.51)abc	.72(.36)a	.85
9회	.77(.45)ab	.97(.75)ab	-.92
10회	.84(.49)abc	.88(.52)ab	-.22
11회	.66(.61)ab	.98(.51)ab	-1.31
	F	F	
	2.10*	1.87*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회기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결측치임

표 2. 저항 유형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값의 비교

	초보자	숙련자	t	
내담자 관련 저항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회피	1.10(1.11)	1.55(1.91)	-3.42**
	모호한 의사소통	.89(.96)	1.27(1.12)	-3.28**
	주지화된 의사소통	1.40(1.08)	1.78(.98)	-3.29**
	탐색과 이해의 결여	1.11(1.02)	1.57(1.04)	-3.94***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52(.84)	.80(1.07)	-2.48*
전체	1.00(.59)	1.41(.78)	-5.24***	
상담자 관련 저항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	.39(.74)	.06(.34)	4.58***
	상담자 개입에 대한 비순종	1.02(1.11)	.81(1.05)	1.76
	상담방식에 대한 이견 불만	.27(.66)	.13(.47)	2.21*
전체	.56(.65)	.34(.46)	3.53***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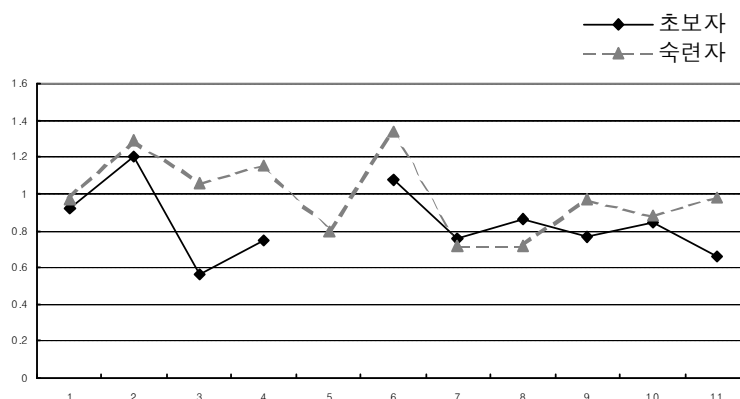


그림 1. 초보자와 숙련자의 회기별 저항

평균 1.09로 .84인 초보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비교적 초기인 3회와 4회에 숙련자가 더 높은 저항 수준을 나타냈다. 회기 진행에 따른 저항 수준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05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으나 그 양상은 둘 간에 차이가 났다 (그림 1 참조). 즉 초보자는 상담초기인 2회(c)에 높은 저항을 보인 후 3회(a)에 저항 수준이 가장 낮아졌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저항 수준(ab, abc, bc)을 나타낸 반면, 숙련자는 상담 초기인 2와 4회에 가장 높은 저항을 보이는 6회와 같은 수준의(b) 저항을 보인 후, 7회(a) 이후로 중간 수준(ab)의 저항이 지속된다. 이는 상담 초기(2회)에 강하게 나타났던 저항이 초보자는 지속되지 않은 반면, 숙련자는 계속 지속되다가 6회기에 가장 높은 저항(1.34)을 보인 후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숙련자의 저항 변화는, “내담자의 저항 강도는 치료 과정 중에 끊임없이 변하여 새로운 주제로 접근하면 저항은 언제나 고조되며, 그 주제를 처리하는 절정에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이다가 그 주제가 해결되면 없어진다”고 한 Freud(1900)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이를 연구 1)의 결과와 연결시켜보면, 숙련자는 저항 수준의 변화 요인으로 내담자 관련 저항이 작용했을 가능

성이 있다. 저항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숙련된 상담 자세는 상담자로부터 유발된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내담자가 가진 저항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 저항에 접할 때에는, 내담자의 저항을 내담자의 자기 문제 표현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저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내담자가 저항을 극복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시기 적절한 상담 개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내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저항에 일정한 변화 패턴이 있을 수 있음도 시사해준다.

초보자와 숙련자의 상담자 개입특성 차이

상담자 개입특성에 따른 차이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 개입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4에 의하면 지시성과 위협도는 초보자가, 깊이와 숙련자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대인적 분위기는 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초보자와 숙련자가 상담에서 같은 수준의 대인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초보자는

표 4. 상담자 개입특성의 차이

	초보자 평균 (n = 80)	숙련자 평균 (n = 76)	t
지시성	2.22(1.15)	1.97(.97)	2.14*
깊이	1.61(.94)	2.47(1.33)	-6.57***
대인적분위기	3.43(.76)	3.37(.56)	.84
위협도	1.29(.71)	1.07(.32)	3.38**

주. * $p < .01$ *** $p < .001$ n = 상담토막의 수

숙련자보다 더 지시적이고 위협적이었으며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더 깊이 있는 개입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숙련자는 해석에 더 중점을 두고, 초보자는 직접적 지시, 충고, 침묵 등의 언어 반응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 Scher(1975), Sipps, Sugden & Faiver(1988)의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회기 진행에 따른 상담자 개입 수준의 변화

회기 진행에 따른 상담자 개입 수준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기별 지시성 수준의 변화 : 표 5에 의하면, 각 회기별로는 초보자가 1, 6, 10 회에 숙련자가

표 5. 회기별 지시성 비교

	초보자 평균	숙련자 평균	t
1회	2.18(.54)ab	1.37(.52)a	3.50**
2회	2.62(1.02)bc	2.44(1.21)bc	.47
3회	1.50(.82)a	2.19(.75)abc	-3.02**
4회	2.12(1.31)ab	1.81(.83)abc	.81
5회	/	1.62(.74)ab	/
6회	2.44(.89)bc	1.50(.63)a	3.43**
7회	1.44(.63)a	2.06(1.06)abc	-2.02
8회	1.62(.81)a	2.62(1.20)c	-2.76**
9회	2.12(.81)ab	1.81(.91)abc	-.93
10회	3.19(1.61)c	1.81(.83)abc	3.05**
11회	3.00(1.50)c	1.87(1.13)abc	1.86
	F	F	
	5.44***	2.15*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회기간 차이 없음을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 결측치임.

3, 8회에 높은 지시성을 유의미하게 보인다. 회기 진행에 따른 지시성 수준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초보자(.001)와 숙련자(.05)가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있으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다(그림 2 참조). 초보자는 1회(ab)에 중간 정도였던 지시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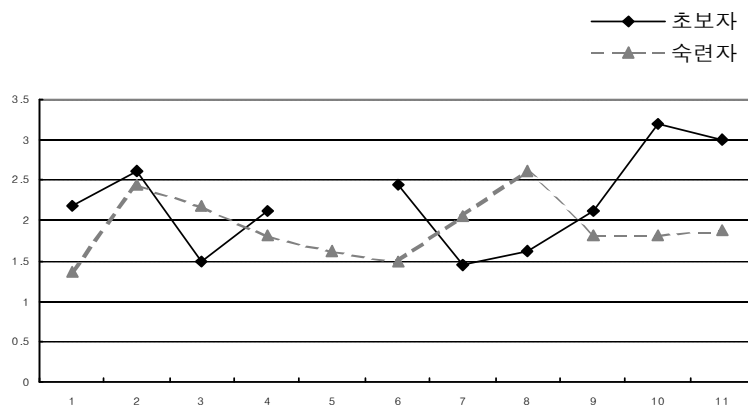


그림 2. 초보자와 숙련자의 회기별 지시성 비교

3, 7, 8 회(a)에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면서 회기 진행에 따라 증감을 보이다 마지막 두 회기(c)에 높아지나, 숙련자는 1회(a)에 낮았던 지시성이 2회(bc)와 8회(c)를 정점으로 점차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

이 결과를 표 4의 결과와 연결시켜보면, 초보자는 상대적으로 숙련자보다 높은 지시성을 사용했으나 지시성을 매 회기마다 순간적인 반응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숙련자는 많은 지식적 기반과 인지능력을 사례개념화에 뛰어나다고 한 Mellinckdt & Nelson(1991)의 연구 결과처럼 상담 초기에 파악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회기간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지시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회기별 깊이 수준의 변화 : 표 6에 의하면, 각 회기별 개입 깊이의 차이에서 숙련자만이 3, 6, 7, 8, 9회에 초보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깊이를 보여준다. 상담회기 진행에 따른 개입 깊이 수준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나 변화 양상은 차이가 났다(그림 3참조). 초보자는 1회(bc)에 중간 정도였던 깊이가 2회(c)에 높아진 후 낮아져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 반면, 숙련자는 1회(ab)에 낮은 중간

표 6. 회기별 깊이 비교

	초보자 평균	숙련자 평균	t
1회	2.12(1.15)bc	2.00(.53)ab	.29
2회	2.31(1.35)c	2.31(1.14)abc	.00
3회	1.50(.82)ab	2.62(1.26)bc	-3.00**
4회	1.37(.89)a	1.87(1.05)ab	-1.48
5회	/	2.75(1.67)bcd	/
6회	1.56(.81)ab	2.56(1.26)bc	-2.66*
7회	1.31(.70)a	2.31(1.54)abc	-2.37*
8회	1.56(1.09)ab	3.25(1.00)cd	-4.56***
9회	1.81(.83)abc	3.69(1.30)d	-4.85***
10회	1.31(.49)a	1.81(1.22)ab	-1.52
11회	1.25(.58)a	1.37(.74)a	-.46
	F	F	
	2.55**	4.02***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회기간 차이 없음을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 결측치임

정도였던 깊이가 점차 높아지다 9회(d)에 최고의 깊이를 보인 후 10회(ab) 이후로 낮아졌다. 이 결과를 표 3의 회기별 저항 변화와 연결시켜보면, 초보자는 내담자의 저항이 높아진 2회(c)와 6회(ab) 다음 회기인 3회(ab)와 7회(a)에 개입의 깊이 수준이 낮아진 반면, 숙련자는 높은 저항을 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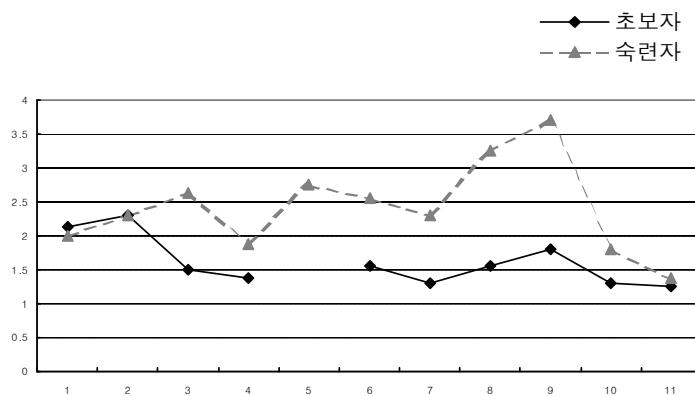


그림 3. 초보자와 숙련자의 회기별 깊이 비교

2(abc), 4(ab), 6회(bc) 다음 회기인 3(bc), 5(bcd)회와 7회 후(7회는 abc로 낮아지나 8회에 cd, 9회에 d를 높아짐)에 개입의 깊이를 높여주었다.

이는 숙련자가 초보자와는 달리 내담자들이 보이는 높은 저항 다음에 개입의 깊이를 더해주면서, 상담회기 진행에 따라 파악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촉진적인 자세로 상담 개입의 깊이를 더해갔음을 말해준다.

회기별 대인적 분위기 수준의 변화 : 표 7을 보면, 각 회기별 대인적 분위기의 차이에서 초보자는 6회, 8회에, 숙련자는 10회에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보였다. 또한 회기 진행에 따른 대인적 분위기 수준 변화는, 전체적으로 초보자는 회기 진행에 따라 대인적 분위기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숙련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인적 분위기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다(그림 4 참조). 초보자는 상담 첫 회(ab)에 3.50으로 중간 정도였던 대인적 분위기가 8회(c)에 4.19까지 급격히 상승한 후 10회(a)에는 2.94까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증감의 변화가 있으나, 숙련자는 전 회기동안 3.00에서 3.62까지의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는 대인적 분위기를 유지한다. 이는 숙련자는 초보자에 비해 내담자의 태도에 영향을 덜 받고

표 7. 회기별 대인적 분위기 비교

	초보자 평균	숙련자 평균	t
1회	3.50(.73)ab	3.37(.51)ab	.43
2회	3.37(.62)ab	3.25(.48)ab	.00
3회	3.25(.45)ab	3.56(.63)b	-1.62
4회	3.12(.62)ab	3.37(.62)ab	-1.14
5회	/	3.62(.52)b	/
6회	3.37(.62)ab	3.00(.00)a	2.42*
7회	3.44(.73)ab	3.50(.63)ab	-.26
8회	4.19(.66)c	3.37(.50)ab	3.94***
9회	3.50(.82)ab	3.31(.60)ab	.74
10회	2.94(.57)a	3.50(.73)ab	-2.42*
11회	3.62(1.09)b	3.25(.46)ab	1.18
	F	F	
	3.53**	1.48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회기간에 차이 없음을 의미
* $p < .05$ ** $p < .01$ *** $p < .001$ / 결측치임

일관되게 행동한다는 Berry(1970)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이 결과를 회기별 저항 변화와 연결시켜 보면, 초보자는 높은 저항(c, bc)을 보인 2회와 6회의 다음 회기인 3회와 7회에도 변화가 없이 똑같은(ab) 수준의 대인적 분위기를 유지하나 숙련자는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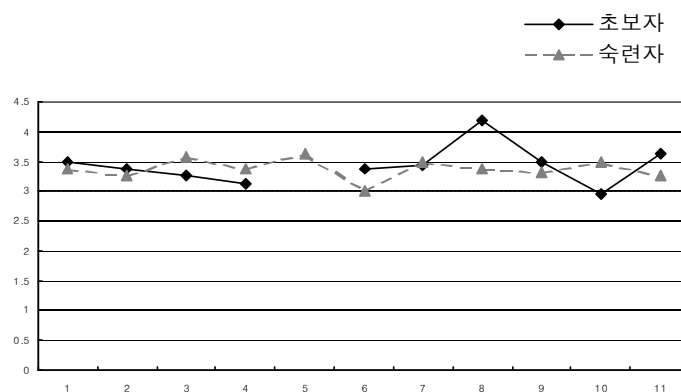


그림 4. 초보자와 숙련자의 회기별 대인적 분위기 비교

저항(c)을 보인 2(ab), 4(ab), 6회(a) 다음 회기인 3(b), 5(b), 7회(ab)에 전 회기보다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처럼 저항 후에 보이는 초보자와 숙련자의 다른 태도는 내담자 저항이 있을 다음, 성공사례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증가 되고, 실패사례는 감소하였다는 권희경(1999)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는 숙련자가 내담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회기에 걸쳐 적절하고 지속적인 대인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내담자가 더 큰 저항을 보인 후에는 더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융통성 있게 조성했음을 보여준다.

회기별 위협도 수준의 변화 : 표 8에 의하면, 각 회기별로 위협도의 차이는, 초보자만이 1회와 10회에 숙련자보다 높은 위협도를 보인다. 회기 진행에 따른 위협도 수준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가 위협도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그 변화 양상은 둘간에 차이가 났다(그림 5 참조). 초보자는 1회(ab)에 중간 정도였던 위협도가 증감을 계속 하다 마지막 두 회기(b, ab)에 높아지나 숙련자는 숫자적인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1회(a)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는 수준이 11회(a)까지 지속된다.

표 8. 회기별 위협도 비교

	초보자 평균	숙련자 평균	T
1회기	1.25(.48)ab	1.00(.00)a	2.24*
2회기	1.31(.70)ab	1.25(.58)a	.28
3회기	1.06(.25)a	1.00(.00)a	1.00
4회기	1.25(.58)ab	1.19(.40)a	.36
5회기	/	1.00(.00)a	/
6회기	1.31(.70)ab	1.25(.58)a	.28
7회기	1.25(.58)ab	1.00(.00)a	1.73
8회기	1.06(.25)a	1.00(.00)a	1.00
9회기	1.06(.25)a	1.12(.34)a	-.59
10회기	1.75(1.29)b	1.00(.00)a	2.32*
11회기	1.62(1.02)ab	1.00(.00)a	2.44
	F	F	
	1.81	1.67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회기간 차이 없음을 의미
* $p < .05$ / 결측치임

이러한 결과를 회기별 저항 수준의 변화와 연결시켜보면, 초보자는 내담자가 높은 저항(c, bc)을 보인 다음 회기인 3회(a)와 7회(ab)에 위협도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숙련자는 높은 저항을 보인(c) 다음 회기인 3, 5, 7회기에도 그 전 회기와 같은 위협도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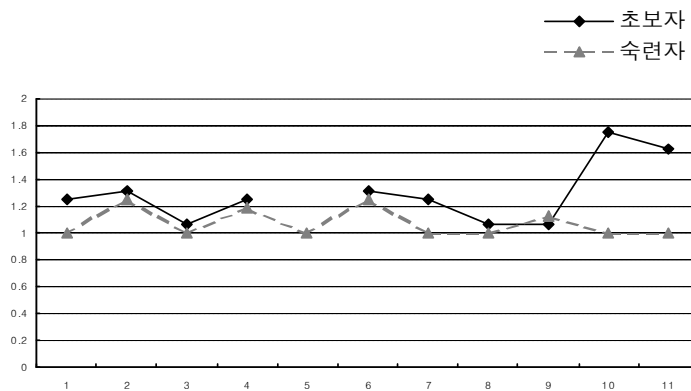


그림 5. 초보자와 숙련자의 회기별 위협도 비교

로 숙련자는 내담자의 저항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호적이고 비위협적인 상담 태도를 지속적으로 매회마다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Berry(1970)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초보자와 숙련자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과의 상관 비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9에 의하면, 초보자는 지시성과 위협도가, 숙련자는 위협도가 저항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었던 숙련자의 아주 낮은 위협도 까지도 저항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볼 때, 숙련자이든 초보자이든 상담자의 위협적인 자세는 상담자 관련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으며, 상담자가 더 지시적일수록 그리고 더 위협적일수록 저항도 커짐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시

성이 높을수록, 내담자에게 더 위협적일수록 내담자의 저항은 커진다는 조성호(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볼 점은 표 2에서 숙련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내담자 관련 저항이 표 9에서는 저항과는 상관이 없어 숙련자의 내담자는 상담자 개입과는 무관하게 저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장면에서는 상담자 개입과는 무관한 순수하게 내담자로부터 기인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상담자의 지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의 증가는 내담자의 저항 증가를 유발 할 수 있으나 상담자의 시기 적절한 개입은 저항을 일으키는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의 것으로 하면서 저항의 상담자 요인과는 무관하게 저항 해결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 결과적으로 저항 해결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특질적 차이보다는 내담자의 저항을 깊이 이해하고 파악하여 이를 적절하게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상담자의 숙련 정도가 더 큰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9. 초보자와 숙련자간의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과의 상관

저항	지시성	상 담 자 개 입 특 성						위협도	
		깊이		분위기					
		초보	숙련	초보	숙련	초보	숙련		
내담자 관련 저항	의사소통 직접회피	.32***	.20*	.07	-.04	-.12	.06	.01	.17
	모호한 의사소통	.02	.03	.15	-.01	.07	-.03	-.14	-.01
	주지화된 의사소통	-.08	.06	-.04	-.02	-.07	.05	.05	.04
	탐색과 이해결여	.15	.08	.14	-.14	-.11	-.05	.10	.15
	변화의소극적태도	.18*	.07	.12	.05	-.00	.17*	.06	.13
	진체	.20*	.13	.14	-.05	-.09	.06	.03	.12
상관	상담자에 부정반응	.31***	.07	.13	.02*	-.04	-.02	.18	-.02
상담자 저항	상담자 개입비순종	.38***	.05	-.02	-.01	-.20*	-.06	.34***	.28***
	상담방식 이견불만	.26**	.23**	.02	.12	-.03	.12	.11	.23**
	진체	.42***	.11	.12	.09	-.14	-.03	.29***	.28***

주. * $p < .05$ ** $p < .01$ *** $p < .001$

초보자와 숙련자의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

문제의 경중이 다른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에서 초보자와 숙련자의 상담자 개입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숙련자의 두 사례에서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의 차이를 알아봤다.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에서 초보자와 숙련자의 상담자 개입특성의 차이

표 10에 의하면 단기상담에서 초보자는 대인적 분위기와 위협도가 숙련자는 깊이가, 장기상담에서 초보자는 위협도가 숙련자는 깊이가 더 높은 점수를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이는 단기와 장기

표 10.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에서 초보자와 숙련자 간의 상담자 개입특성 비교

단기상담	초보자 1 평균	숙련자 1 평균	t
지시성	2.09(1.06)	1.80(.83)	1.91
깊이	1.72(.98)	2.57(1.38)	4.48***
대인적분위기	3.46(.76)	3.26(.47)	1.99*
위협도	1.21(.52)	1.04(.25)	2.71**
장기상담	초보자 2 평균	숙련자 2 평균	t
지시성	2.36(1.23)	2.15(1.08)	1.18
깊이	1.50(.90)	2.36(.63)	4.80***
대인적분위기	3.40(.76)	3.49(.63)	-.76
위협도	1.37(.85)	1.14(.39)	2.25*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숙련자 사례의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

저항	단기상담 평균(표준편차)	장기상담 평균(표준편차)	T
내담자 관련 저항			
의사소통의 직접적인 회피	1.00(.95)	2.15(1.15)	-6.76***
모호한 의사소통	1.16(1.08)	1.40(1.14)	-1.33
주지화된 의사소통	1.51(.95)	2.08(.91)	-3.75***
탐색과 이해의 결여	1.27(.98)	1.90(1.01)	-3.89***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46(.75)	1.17(1.24)	-4.17***
전체	1.08(.637)	1.74(.75)	-5.82***
상담자 관련 저항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	.05(.33)	.11(.36)	-.43
상담자 개입에 대한 비순종	.56(.94)	1.08(1.11)	-3.10**
상담방식에 대한 이견과 불만	.05(.22)	.22(.63)	-2.19*
전체	.23(.35)	.45(.52)	-3.06**
저항 총합	.78(.48)	1.27(.62)	-5.54***
상담자 개입특성	단기상담 평균(표준편차)	장기상담 평균(표준편차)	T
지시성	1.80(.83)	2.15(1.08)	-2.26*
깊이	2.57(1.08)	2.36(1.26)	.99
대인적 분위기	3.26(.47)	3.49(.63)	-2.46*
위협도	1.04(.25)	1.14(.39)	-1.90

주. * $p < .05$ *** $p < .01$ **** $p < .001$

상담 모두에서 초보자는 숙련자보다 더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더 깊이 있는 개입을 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표 9와 연결시켜보면 내담자의 특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는 숙련자에 비해 더욱 위협적인 상담 태도를 가지므로 상담자 관련 저항을 유발하기가 쉬우며,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더 깊이 있는 개입을 하면서도 저항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숙련자 사례에서의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

표 11에서 저항을 살펴보면, 장기상담이 단기상담보다 내담자 관련 저항, 상담자 관련 저항 그리고 저항 총합에서 높은 저항을 보인다. 이처럼 문제의 심각도가 중한 장기 상담의 내담자가 문제의 심각도가 경한 단기상담의 내담자보다 더 큰 저항을 보이는 것은 저항과 내담자 특질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Schuller(1991)의 연구결과와, 내담자들간의 차이가 저항의 변이라고 했던 Mahalik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과는 상관없다고 한 조성호(1997)의 연구 결과와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저항에 따른 상담자 개입특성을 보면 장기상담이 단기상담보다 높은 지시성과 대인적 분위기를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숙련자는 각각의 내담자 문제 심각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상담 개입을 했음을 보여준다. 즉 그는 높은 저항을 보이고 있는 장기상담 내담자에게 더 지시적이고 더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담태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경험 많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융통성이 있으며 더욱 개방적이라고 했던 Scher(197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저항을 다루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개입 자세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초보자와 숙련자의 사례에 나타난 저항의 차이, 상담자 개입특성의 차이,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과의 상관정도의 차이, 그리고 단기상담과 장기상담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위와 같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와 관련된 내담자들은 단기와 장기상담에 따라 문제의 경중의 차이는 달랐으나 나이, 직업, 상담자가 체크했던 문제의 영역들이 비슷했고, 상담자들은 상담경력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 상담자가 사용했던 상담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두 그룹이 기술적인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위해 필요한 변인을 최소한으로 줄인 결과 나온 초보자와 숙련자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저항의 차이를 보면, 전체 저항의 양이 초보자가 평균 .84, 숙련자가 1.09로 저항이 숙련자에게서 더 많았는데, 숙련자는 내담자 관련 저항이 그리고 초보자는 상담자 관련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회기별 비교에서 초기 저항이 초보자는 바로 낮아졌으나 숙련자는 몇 회기 동안 지속된 후 낮아졌다. 상담자 개입 특성의 차이에서 초보자는 지시성과 위협도가 숙련자는 개입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변화의 양상도 초보자에 비해 숙련자가 더욱 일관성 있는 변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간의 차이에서 위협도는 초보자와 숙련자가 모두 저항과 상관이 있었으나 초보자는 지시성이 저항과 상관이 있었는데 숙련자에게 높게 나타났던 내담자 관련 저항은 상담

자 개입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상관관계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저항과 상담자 개입특성의 차이가 내담자들의 특질적 차이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항을 다루는 상담자의 숙련성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종합하여 상담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적인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항과 관련된 의의는, 초보자에게서 상담을 받는 숙련자에게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은 상담 중에 내담자 관련 저항과 상담자 관련 저항을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상담자 관련 저항보다는 내담자 관련 저항을 더 빈번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상담경력에 따라 내담자의 저항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초보자는 상담자 관련 저항이, 숙련자는 내담자 관련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항에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닌 내담자로부터의 순수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회기 진행에 따른 내담자들의 저항 변화의 패턴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보이는 저항을 내담자의 자기 문제 표현으로 생각하고 상담자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내담자가 저항을 극복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시기 적절한 상담 개입을 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상담자 개입 특성과 관련한 의의에서, 상담에서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같은 수준의 대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특질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초보자는 숙련자보다 더 지시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숙련자는 초보자보다 더 깊이 있는 개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항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공감적이고 시기 적절한 상담 개입의 자세는

더욱 중요한 데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게 해주었다. 즉 부적절한 상담자의 지시성은 저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나 상담자의 시기 적절한 지시성은 저항 해결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지시성을 무조건적 배제하거나 지시성을 매 회기마다 순간적인 내담자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회기간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지시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개입의 깊이를 사용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를 초기에 파악하고 상담자는 회기 진행에 따라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촉진적인 자세로 상담 개입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하며 내담자가 높은 저항을 보인 후에는 개입의 깊이를 줄이기보다는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대인적 분위기는 내담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회기에 걸쳐 중간정도의 수준에서 적절하고 지속적인 대인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내담자가 더 큰 저항을 보인 후에는 좀 더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융통성 있게 조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초보자이든 숙련자이든 상담자의 위협적인 상담자세는 저항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낮거나 거의 없는 듯한 수준에서 우호적이고 비위협적인 상담 태도를 매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심각도가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의의를 보면,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문제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담자 개입의 자세를 달리해야 한다. 즉 문제가 심각하면 필요시에는 지시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좀 더 높은 대인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수가 작고, 본 연구와 관련된 상담자의 상담접근법이 정신역동에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담접근법을 사용하는 모든 상담 장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상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다른 상담접근법을 사용하는 초보자와 숙련자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 상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 중 3 사례가 이미 상담이 완료된 상태여서 회기 진행에 따른 객관적인 상담성과를 측정할 수 없었다. 셋째,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 개입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방향성이 검증되지 못하므로써 내담자 저항 혹은 상담자 개입특성의 직접적인 원인과 영향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희경 (1999). 내담자 저항감소와 상담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C. & Stewart, S. (1983). *Mastering resistance: A practical guide to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Beery, J. W. (1970). Therapists' responses as a function of level of therapist experience and attitude of the pati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239-243.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2-260.
- Brenner, C. (1976).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ic conflict*. New York: Washington, C. C.: Hemisphere.
- Breuer, J., & Freud, S. (1893-1895). Studies on hysteria. In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2). London: Hogarth Press.
- Chamberlain, P., Patterson, G., Reid, H. Kavanagh, K., & Forgatch, M. (1984). Observation of client resistance. *Behavior Therapy*, 15, 144-155
- Dewald, A. P. (1974).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ape Library.
- Ellis, A. (1985). *Overcoming resistance: Rational-Emotive Therapy with difficult clients*. New York: Springer.
- Fenichel, O. (1945).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W. Norton.
- Fine, R. (1982). *The healing of the mind*. New York: The Free Press.
- Freud, A. (1946). *The ego and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eud, S. (1900).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s. 4 and 5). London: Hogarth Press.
- Garduk, E. L., & Haggard, E. A. (1972). Immediate effects on patients of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Psychological Issues*, 7(Monograph 28)
- Glover, E. (1955).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ill, C., Charles, D., & Reed, K. (1981).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nges in counseling skills during doctor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428-436.
- Hillerbrand, E. (1989).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novices; Implications for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293-296.
- Hillerbrand, E., & Claiborn, C. D. (1990). Examining reasoning skill differences between experts and novice counsel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684-691.
- Langs, R. (1981). *Resistances and Interventions: The nature of therapeutic work*. Northvale, NJ: Jason Aronson.
- Lewis, W. A., & Evans, J. W. (1986). Resistance: A reconceptualization. *psychotherapy*, 23, 426-432.
- Lazalus, A. A., & Fay, A. (1982). Resistance or rationalization? A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In P.L. Wachter(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Mahalik, J. R. (1994). Development of the Client Resistanc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 58-68.
- Meichenbaum, D. (1977). *Cognitive-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 Plenum.
- Patterson, G. R., & Forgatch, M. S. (1985). Therapist behavior as a determinant for client noncompliance: A paradox for the behavior modifi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 846-851.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Cambridge: Houghton, Mifflin.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Scher, M. (1975). Verbal activity, sex, counsellor experience, and succes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2, 97-101.
- Schuller, R. Crist-Christoph. P. M. & Connolly, M. B. (1991). The Resistance Scale: Background and psychometric properties. *Panalytic Psychology*, 8, 195-211.
- Sipps, G. J., Sudgen, G. J., & Faiver, C. (1988). Counseling training level and verbal response type; Their relationship to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 397-401.
- Speisman, J. D. (195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th of interpretation and verbal expressions of resistance I psych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Stone, L. (1973). On resistance to the psychoanalytic process; some thoughts on its nature and motivations. In B. Rubinstein(Ed.), *In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Science(Vol. 2)* New York: Machillan, 42-73.
- Strean, H. S. (1985). *Resolving resistances in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Strupp, H. H. (1958). *Change through interaction: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Winston, B., Winston, A., Samstag, L. W. (1994). Patient Defense/therapist interventions. *Psychotherapy* 31, 3, 478-490.

원고접수일 : 2001.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1. 12. 21

게재결정일 : 2002. 2. 28

Client Resistance and Characteristics of Counselor Intervention: Comparing Novice Counselor with Skilled Counselor

Seon Ja Lee

Hae Rim Choi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client resistance and counselor intervention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selor's personal experience level, and to present desirable counseling intervention attitudes in dealing with client resist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four counseling cases involving novice and skilled counselors,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of levels of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counselor intervention,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nd benefits of long-term and short-term psychotherapy. In resistance, the novice counselor was high in counselor related resistance and the skilled counselor was high in client related resistance; the skilled counselor's initial resistance level increased then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the content of resistance can be different depending upon a counselor's personal experience level and a pattern of client resistance can be established. In the counselor's intervention, the novice was high in directiveness and intimidation, the skilled counselor was high in depth, while the interpersonal atmosphere was no different between two of them. In the counselor's intervention level by counseling sessions, the novice showed fluctuations of each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without an established pattern. The skilled counselor showed directiveness and depth fluctuating with an apex, the interpersonal atmosphere consistently kept a middle level throughout the sessions, and the level of intimidation was very low.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counselor needs to use appropriate directiveness, increasing the depth of intervention, preserving a positive interpersonal atmosphere, without intimidation. In the correlation between resistance and counselor intervention, the novi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directiveness and intimidation and the skilled counsel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intimid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directiveness and intimidation, the higher the resistance. The high resistance toward the skilled counselor had nothing to do with counselor intervention. This shows there can be client resistance without a counselor's intervention. In the difference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psychotherapy, the skilled counselor showed higher resistance, directiveness and interpersonal atmosphere in long-term psychotherapy. This result indicates that counselor can vary the content and the degree of intervention in accordance with a client's traits and the phase of treatment.

Key Words : *resistance, counselor intervention, skilled counselor, novice counselor*